‘V(P)+來’ 구문 분석
— 이동사건의 관점에서

金 株 希*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이동사건
   2.1 이동사건(motion event)
   2.2 ‘來’가 구성하는 이동사건
3. ‘V(P)+來’ 구문 분석
   3.1 ‘V(P)+來$_1$’ 구문
   3.2 ‘V(P)+來$_2$’ 구문
   3.3 ‘V(P)+來$_3$’ 구문
4. 맺음말

1. 들어가는 글

현대중국어 기본 이동동사인 ‘來’는 ‘V(P)’와 결합하여 ‘來+V(P)’, ‘V(P)+來’, ‘V(P)$_1$+來+V(P)$_2$’ 등과 같은 다양한 구문을 구성한다. 본고는 이 중 ‘來’가 동사구 뒤에 결합된 ‘V(P)+來’ 형식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V(P)+來’ 형식이 출현한 예문[1]들을 살펴보자.

(1) 舅舅, 我給您拜年來了！
외삼촌, 저 외삼촌께 세배하러 왔어요! 【報刊\1994年人民日報】

www.kci.go.kr

* 柳韓大學校 中國비즈니스學科 講師

1) 본 논문의 분석에 인용된 예문은 모두 베이징대학교 현대한어코퍼스 당대(當代)자료에서 추출하였다.

(2) 第二天, 一個50歲上下的男人朝我的車走來, 更準確地說, 是朝我這個人走來。
이튿날 쉰 살 정도 되는 남자가 내 차를 향해 걸어왔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해 다가왔어. 【史傳\中國北漂藝人生存實錄】

(3) 剛開始我們還能拆幾個好機子給用戶換換零件, 可最多的一天, 用戶拿來了10多臺壞機子, 我們根本沒法修理。
처음에는 멀쩡한 기계를 뜯어서 부품을 바꿔줬어. 그런데 제일 많은 날은 고객이 고장 난 기계를 10대 넘게 가져 온 거야. 수리할 방법이 없었지. 【報刊\1994年報刊精選】

(4) 現在先別急, 我要睡個午覺, 我說, 我會在醒來後再看。
일단 서두르지 마. 내가 낮잠을 좀 자야하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서 볼게. 【史傳\姚明. 我的世界我的夢】

예문(1)은 '我'가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온 목적이 '拜年'이라는 동작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來'와 '拜年' 모두 '我'가 행한 동작행위이다. '來'는 실제적인 공간상의 위치이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拜年'은 그 위치이동의 목적이 된다.

예문(2)에서는 행위자인 '男人'이 '來' 앞에 선행하는 동사 '走'가 나타내는 동작을 하면서 화자인 '我'를 향한 위치이동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3)은 행위자인 '用戶'가 대상인 '10多臺壞機子'에 대해 이동을 발생시켜 '10多臺壞機子'가 기준점을 향해 이동하였음을 나타낸다.

예문(4)는 공간상에서 위치이동이 발생했음을 나타내지도 않고, 예문(1)과 같은 목적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劉月華(1998)는 예문(4)의 '醒來'를 '醒'이라는 상태의 '실현'으로 보고, 이때 '來'는 동작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고, 梁銀峰(2005)은 '醒來'의 '來'를 동작상태의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동상보어'로 보았다.

이상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예문(1)-(4) 모두 'VP+來' 형식이 사용되었으나 각 문장에서 '來'는 각기 다른 의미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P)+來' 형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V(P)' 뒤에 출현한 '來'가 동사인지 방향보어인지 대한 논의이거나, 예문(1)-(3)에서와 같이 위치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에서 예문(4)에서와 같은 결과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의 의미변화에 대한

www.kci.go.kr

것이었다. 하지만 예문(1)-(3)을 살펴보면 '來'가 모두 실제적인 공간상의 위치이동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1)에서는 'V(P)'가 나타내는 동작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위치이동을, (2)에서는 행위자의 위치이동이 일정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3)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동의 주체가 아닌 대상(theme)의 위치이동을 발생시키는 사역주의 역할을 하는 '사역적 이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각 문장에서 'V(P)'와 '來' 사이의 관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來'가 실제적인 위치이동의미를 나타내는 'V(P)+來' 형식에 대해 Talmy(1985:61)가 제시한 이동사건(motion event)의 관점에서 이동사건 구성요소로서 'V(P)'와 '來'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동사건

이동동사 '來'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술어로 쓰여 '화자를 향한 위치이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기타 동사와 결합하여 이동사건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동사건의 구성요소로서 이동동사 '來'가 구성하는 여러 유형의 이동사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이동사건(motion event)

Talmy(1985:61)는 이동관련 어휘들이 단순히 어휘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동 관련 개념들이 하나의 이동사건(motion event)[2]을 구성한다고 하며 다음

2) Talmy(1985:61)에서 'motion event' 개념은 장소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동뿐만 아니라 정적인 공간개념 즉 정지된 위치의 계속적인 상태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로 쓰인다. 이에 따라 '전경'(figure)과 관련하여 이동의 유형을 전경이 이동하는 '순수이동'(genuine motion)과 전경의 이동 가능성은 있으나 이동하지 않는 제로이동 혹은 제로경로의 '처소성'(locatedness)으로 나누었다. 순수이동의 보기로는 "The pencil rolled off the table."을, 처소성의 보기

과 같은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a. 전경(Figure): 이동체
b. 배경(Ground): 전경의 이동과 관련된 참조점 대상
c. 경로(Path): 배경과 관련하여 전경이 따라가는 진로
d. 이동(Motion): 이동의 존재
e. 방식(Manner): 이동을 실행하는 수단이나 양태
f. 원인(Cause): 이동을 발생시키는 외적 요인

이 중 <전경>, <배경>, <경로>, <이동>을 이동사건의 틀 속에 놓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 구성 요소로, <방식>, <원인>을 이동사건의 부차적 구성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동사건의 구성요소 중 <경로>가 이동사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전경>, <배경>, <이동> 사이의 관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경로가 이동사건의 틀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동의 경로를 동사 속에 통합적으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동사가 아닌 요소(위성어)로 따로 나타내는가에 따라 언어를 '동사틀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어틀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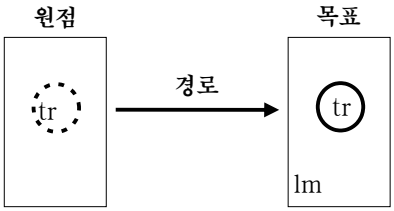
2.2 '來'가 구성하는 이동사건

먼저 이동동사 '來'가 단독으로 구성하는 이동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來'가 나타내는 위치이동의 의미는 '원점', '경로', '목표' 개념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경로도식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www.kci.go.kr

로는 "The pencil lay on the table."을 들고 있다. 임지룡(2000:25)참조.

<그림 1> '來'의 이동도식



이때 화살표는 이동주체인 tr(trajector, 탄도체)의 이동과정과 방향을 나타낸다. '來'가 나타내는 이동사건에서 목적지는 명시적인 장소명사구로 출현할 수도 있으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화자의 위치가 목적지, 즉 기준점이 된다. 이 기준점은 위의 영상도식에서 lm(landmark, 지표)으로 표시된다. 화자의 위치는 '來'가 표현하는 이동의 기준점이 되어 '來'는 화자가 있는 위치를 향하는 이동을 나타내게 된다. 객관적인 이동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향동사(directionals) '上', '下', '進', '出', '回', '過', '起' 등과 달리 '來'의 이동방향은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주관적 방향이기 때문에 '來'는 항상 화자 위치와의 관련에 의해 그 방향이 구체화되는 '직시적'인[3]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를 이동사건틀에 대입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술어 동사 '來'가 구성하는 이동사건

來: <경로> + <이동>
tr: <전경>
lm: <배경>

3) 직시(deixis)는 지시(reference), 지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eîksis'에서 차용된 용어로서,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 되어 사물을 직접 가리키는데 쓰이는 낱말이나 그러한 문법적 자질이 든 낱말(직시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능(직시)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시 또는 직시소는 발화의 맥락이나 언어행위의 자질들을 언어가 기호화 또는 문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며, 그런 발화의 해석은 발화의 맥락에 대한 분석에 의존한다. 영어학사전(1990:321)참조.

한편, '來'는 기타 방향동사 '上', '下', '進', '出', '回', '過', '起'와 결합하여 'V來' 형식의 복합방향동사를 구성할 수 있다. 'V來' 형식의 복합방향동사가 나타내는 이동사건틀에서 앞의 방향동사와 '來'는 모두 <경로>와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來'가 나타내는 <경로>와 다른 방향동사가 나타내는 <경로>에는 차이가 있다.

Talmy(2000:53-57)는 <경로>를 단순한 구성소라기 보다는 몇 개의 구조적으로 별개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며 경로를 방향성(Vector), 구성(Conformation), 직시성(Deixis)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4] 방향성(vector)은 배경을 기준으로 이동체가 이동하는 도착(arrival), 횡단(traversal), 출발(departure) 유형을 포함한다. 구성(conformation)은 기본배경(fundamental Ground schema)과 전체배경(full Ground object)이 관련된다. 즉 전체배경의 특정 부분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직시성(Deixis)은 '화자를 향하여'와 '화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임지룡(2000: 32)은 Talmy의 <경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경로요소와 직시성 요소를 구별한 Choi&Bowerman(1991:88)을 참조하여 경로관련 요소를 '방향경로', '배경경로', '직시소'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의 합성형 이동동사의 이동사건틀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3> 합성형 이동동사의 이동사건틀

a. 가다, 오다 : <이동+직시소>
b. 나다, 들다, 오르다, 내리다 : <방향경로>
c. 돌다, 거치다, 지나다, 건너다 : <배경경로>

이와 같은 분석을 현대중국어 'V來' 형식의 복합방향동사에 적용해 본다면

www.kci.go.kr

4) 柯理思(2007)는 'Vector', 'Conformation', 'Deixis'를 각각 '向量', '維向', '指示'로 번역했다. 진현(2010:165) 재인용.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 'V來' 형식 복합방향동사의 이동사건틀

'上', '下', '起'	+ '來' :	<방향경로>	+	<이동+직시소>
'進', '出', '回', '過'	+ '來' :	<배경경로>	+	<이동+직시소>

따라서 술어 동사 '來'가 단독으로 구성하는 이동사건틀은 '<경로> + <이동>'이 아닌 <이동+직시소> 로 다시 표시할 수 있다.

'來'는 방향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구)들과 결합하여 이동사건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5> '來'와 동사(구)가 구성하는 이동사건틀

a:	<방식> + <이동+직시소>	:	走來, 跑來, 飛來 등
b:	<원인> + <이동+직시소>	:	拿來, 取來, 寄來 등

a류의 제1동사는 이동의 '방식'을 부호화하며, b류의 제1동사는 대상(theme)의 이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동작행위를 부호화한다.[5][6]

이상과 같이 이동동사 '來'는 각종 유형의 이동사건에서 이동성과 직시성을 나타내는데, 이동사건에서 <방향경로> 가 공간상의 객관적 방향을 지향하는데 반해 '來'는 '화자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직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방식>과 <원인>의 구별은 동사가 기본적으로 이동체의 직접적인 이동을 언급하는지, 행위자나 도구의 행위를 언급하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I rolled the keg into the room."에서 'rolled'는 기본적으로 'the keg'의 이동을 언급하므로 <방식>을 나타내는 반면에, "I pushed the keg into the room."에서 'pushed'는 이동체의 이동방식이 아니라 'I'가 한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며 '밀었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사건의 <원인>을 나타낸다. Talmy(2000:28)참조.

6) Talmy의 분석에서 말하는 '원인(Cause)'성분은 대상이동을 표현하는 타동사 고유의 사역적(causative) 의미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blow'라는 자동사는 그 고유 의미에 사역성이 없지만(The wind blew.), "The napkin blew off the table."처럼 <이동>과 <원인>의 융합이 가능하다(Choi & Bowerman, 1991). 최원희(2010:11)재인용.

www.kci.go.kr

3. 'V(P)+來' 구문 분석

'來'가 구성하는 이동사건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용례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논의에 앞서 먼저 이동사건틀에서 'V(P)'가 담당하는 것이 어떠한 요소인가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누었다. 정리해 보면 'V(P)+來' 형식이 출현한 문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7]

<표 1> 'V(P)+來' 형식에 출현한 '來'의 분류

분류	특 징	예 시
來$_1$	'V(P)'가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	走來, 跑來, 飛來, 開來
來$_2$	'V(P)'가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	上~來, 回~來
來$_3$	'V(P)'가 이동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端來, 拿來, 取來 請來, 派來, 叫來, 喊來, 娶來, 調來

공간상의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V(P)+來'에서 'V(P)'는 이동사건틀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V來'가 나타내는 이동사건에서 '來'는 <이동+직시소>의 역할을 하며 앞의 동사성분들은 각각 <방식>, <경로>,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

3.1 'V(P)+來$_1$' 구문

'V(P)+來$_1$'에서 'V(P)'는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이동사건의 구성요소와 이동의 기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www.kci.go.kr

7) 제1장에서 제시했던 예문 중 (1)과 같은 경우는 '來'가 실제적인 공간상의 위치이동을 나타내지만 'V(P)'와 '來'가 하나의 이동사건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본고의 논의범위가 아니다.

(5) 第二天, 一個50歲上下的男人朝我的車走來, 更準確地說, 是朝我這個人走來。
이튿날 쉰 살 정도 되는 남자가 내 차를 향해 걸어왔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해 다가왔어. 【史傳\中國北漂藝人生存實錄】

(6) 腰上掛着手機的男人, 正牽着一個打扮得妖裏妖氣的女孩的手向我跑來。
허리에 핸드폰을 찬 남자가 요상하게 꾸민 여자의 손을 잡아끌고 나를 향해 뛰어 왔어. 【史傳\中國北漂藝人生存實錄】

예문(5), (6)에서 '來'에 선행하는 동사 '走', '跑'는 그 자체로는 공간상의 위치이동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 〔+동작성〕〔-이동성〕 자질을 가진 〔-방향성〕 동사이다. 이러한 동사들이 '來'와 결합한 뒤 'V(P)+來$_1$' 형식을 이룰 때 'V(P)+來$_1$'이 나타내는 사건은 〔+이동성〕〔+직시성〕 자질을 가진다. 위치이동 주체인 행위자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하면서 <이동+직시소> '來'가 나타내는 기준점을 향한 위치이동을 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문(5), (6)에서는 '朝'와 '向'이 동작행위가 향하는 공간기준점을 표시하는 부사어로 출현하고 있는데, '來$_1$'이 나타내는 방향성을 더 강화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형식에 출현한 동사는 대부분이 단음절 자동사이다.

이러한 '來$_1$'에 대해 위치이동 의미 없이 동작행위의 방향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呂叔湘 1980/2002, 陸儉明 1989, 辛承姬 1998, 劉月華 1998, 謝茹·劉亞軍 2005), 다음과 같이 생략을 통해 '來$_1$'의 의미기능을 검증할 수 있다.

(7) a. 朝我這個人走來 → *朝我這個人走
→ 朝我這個人來
b. 向我跑來 → *向我跑
→ 向我來
c. 紛紛跑來找丁作明 → *紛紛跑找丁作明
→ 紛紛來找丁作明

위의 예문에서 동사 '走', '跑'를 생략하면 여전히 기준점을 향한 위치이동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행위자가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을 할 때의 구체적인

방식을 나타낼 수는 없게 된다. 반면 '來'를 생략하면 문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를 통해 '來$_1$'의 위치이동 의미가 실제적임을 알 수 있다.[8] 'V(P)+來$_1$'은 사람이나 사물이 선행하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행위의 방식으로 기준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기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走', '跑' 등은 '來'가 나타내는 위치이동사건의 <방식>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V(P)+來$_1$' 구문에서 이동주체는 목적어 위치에 출현할 수도 있다.

(8) 就在他無計可施、哀傷悲痛之時, 走來一個黑衣人。
그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비통해 하고 있는 바로 그 때,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왔다. 【應用文\中國兒童百科全書】

(9) 約11時10分左右, 飛來一架外國直昇飛機, 在我們船上空超低空飛行, 不斷拍照攝像就是不打擊。
11시 10분쯤 외국적의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와서 우리 배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계속해서 사진만 찍고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報刊\1994年報刊精選】

예문(8)과 (9)에서 목적어는 'V(P)+來$_1$'에서 'V(P)'가 나타내는 동작행위를 하는 행위자이며 '來'의 이동주체이다. 예문(8)에서 '走來'한 사람이 바로 '一個黑衣人'이고, 예문(9)에서 '飛來'한 것은 바로 '一架外國直昇飛機'이다. 이렇게 행위자이자 이동주체가 목적어로 출현하는 경우 'V(P)+來$_1$'과 목적어의 결합은 'V(P)+來$_1$+행위자목적어' 형식만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V(P)+來$_1$' 구문

통사형식 :	S +	V(P)(동작동사〔-직시성〕〔-이동성〕)	+	來$_1$		
		V(P)(동작동사〔-직시성〕〔-이동성〕)	+	來$_1$	+	O
의미기능 :	이동주체	방식		이동/직시		이동주체
구문의미 :	이동사건					
	(행위자가 V(P)가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함)					

www.kci.go.kr

8) 柯理思(2003)는 중국어를 동사틀과 위성틀 혼합형언어로 보고, 이동체 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이동 동작을 나타낼 때 방향동사는 구조의 핵심이 되어 사건의 경로를 표현하고, 사건의 틀을 담당한다고 했다.

3.2 'V(P)+來$_2$' 구문

'V(P)+來$_2$' 이동사건은 'V(P)'가 나타내는 동작행위의 실행을 통해 이동체가 기준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로, 이때 'V(P)'는 이동의 <경로>를 표시하고 '來'는 <이동+직시소>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에 출현하는 'V(P)'는 방향동사 '上', '下', '進', '出', '回', '過', '起'이다. 이들 방향동사는 앞서 제2장의 <그림4>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하위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上', '下', '起'는 <방향경로>를 나타내고, '進', '出', '回', '過'는 <배경경로>를 나타낸다.

(10) 不打電話, 爲啥最近也不上我家裏來呢。
전화도 안 하고, 왜 요즘에는 우리 집에도 안 와? 【周而復.上海的早晨】
(11) 快回家來, 帮助我工作吧!
빨리 집에 돌아와서 내 일 좀 도와라! 【報刊\1994年報刊精選】

예문(10)과 (11)에서 위치이동의 이동주체는 '來$_2$' 앞에 출현하는 동사가 나타내는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한다. 〔+이동성〕 자질을 가진 동사 '上', '下', '進', '出', '回', '過', '起'는 이동의 방향, 배경을 나타낼 수 있으나 직시기준은 갖지 않는데, '來'와 함께 쓰이면서 '來'가 가진 〔+직시성〕 자질의 영향으로 'V(P)+來$_2$'는 행위자의 위치이동 방향과 배경이 직시기준점을 지향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來'가 가지고 있던 위치이동성 의미는 선행동사의 〔+이동성〕 자질의 영향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여 'V(P)+來$_2$'가 나타내는 이동사건은 실제적인 공간상에서의 위치이동이 발생하지만 여기서 '來$_2$'는 점차 동작행위와 관련된 행위자나 동작대상의 위치이동 방향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변화된다.

'V(P)'는 '來$_2$'가 없어도 〔+이동성〕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치이동의 기점이나 종점과 관계된다. 때문에 문장에 기점이나 종점, 경로 등을 가리키는 성분이 출현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성분이 목적어의 위치에 출

www.kci.go.kr

현한다면 예문(10)과 (11)의 경우에서와 같이 'V(P)'와 '來$_2$'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V+장소목적어+來$_2$'라는 통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V(P)'를 통해 행위자가 장소목적어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선행동사의 뚜렷한 이동성으로 인해 '來$_2$'는 뚜렷한 방향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장소목적어가 '來' 뒤에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劉月華(1980)는 결과보어와 방향보어는 통사적 특징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결과보어의 상당부분이 '…하게 하다'라는 (사역의)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방향보어 '來'도 이동을 통해 위치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어인 장소로 하여금 '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장소목적어는 '來'의 뒤에 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장소목적어가 출현한 경우에 그 장소가 바로 위치이동의 기준점이 되고, 'V+장소목적어+來$_2$'는 장소목적어가 지시하는 그 장소를 향해 위치이동이 발생함을 나타내게 된다. 선행하는 동사가 위치이동이라는 동작행위를 표현하게 되면서 '來$_2$'는 위치이동에 방향의미를 보태는 것으로 기능이 변화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V(P)+來$_2$'구문

통사형식 :	S	+	V(P)(방향동사[-직시성] [+이동성])	+	(O)	+	來$_2$
의미기능 :	이동주체		경로		이동기준점		이동/직시
구문의미 :	이동사건						
	(행위자가 V(P)가 나타내는 경로를 통해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함)						

3.3 'V(P)+來$_3$' 구문

'V(P)+來$_1$'과 'V(P)+來$_2$'가 나타내는 이동사건의 경우 위치이동을 하는 이동주체와 'V(P)'를 실행하는 행위자가 일치하였다. 하지만 'V(P)+來$_3$'이 나타내는 이동사건은 기본적으로 'V'의 동작 대상(theme)이 이동함을 나타내며,

www.kci.go.kr

'來'가 나타내는 이동이 'V'의 행위자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행위자와 대상물이 동시에 이동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V(P)+來$_3$' 구문에서 'V'는 대상(theme)의 위치이동을 야기하는 행위자의 동작행위로, 이동사건틀에서 <원인>요소가 되어, 'V(P)+來$_3$'은 일명 '사역적 이동'이라고도 하는 이동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V(P)+來$_3$'은 'V'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자 이동체가 되는 명사구가 나타내는 것이 유정물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두 개의 하위부류로 나눌 수 있다.

a. 이동체가 무정물인 경우
   예) 端來, 拿來, 取來, 寄來, 送來
b. 이동체가 유정물인 경우
   예) 請來, 派來, 叫來, 喊來, 娶來, 調來

먼저 이동체가 무정물인 경우를 살펴보자.

(12) 一會兒, 它端來一杯咖啡, 并說: "請喝咖啡"。
잠시 후 로봇이 커피 한 잔을 가져와서 "드세요"라고 말했다.
【應用文\中國兒童百科全書】

(13) 到房裏去, 把一個白布包拿來。
방에 가서 흰색 천 가방을 하나 가져 오거라.
【戲曲\曾卓. 祖國的孩子和母親】

(14) 秘書取來一卷畵, 展開掛到了墻上。
비서가 말아진 그림 한 폭을 가져와 펼쳐서 벽에다 걸었다.
【報刊\讀者(合訂本)】

(15) 7點整, 他準時打開了梁老家的門, 送來可口的飯菜。
7시 정각, 그는 정시에 梁씨 어르신 집 문을 열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
【報刊\1994年人民日報】

예문(12)-(15)에서는 'V(P)'가 나타내는 동작행위의 행위자가 동작행위 '端', '拿', '取', '送'을 통해 동작대상 '咖啡', '白布包', '畵', '飯菜'의 위치이동을 발생시켰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이동체인 동작대상은 행위자의 '휴대'를 통해

www.kci.go.kr

이동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V(P)+來$_3$'을 행위자가 동작행위를 실행하고 동작대상이 위치이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견해(劉月華 1998)도 있고, 이동(來)한 것은 행위자이고, 동사와 '來'는 동작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이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에서 'V(P)'는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을 야기하는 행위자의 동작행위를 나타내어 이동사건의 <원인>요소를 담당하고, '來'는 행위자와 동작대상인 사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하나의 이동사건을 구성하게 된다. 〔+동작성〕〔-이동성〕 자질을 가진 동사 '端', '拿', '取', '送'에 '來'가 결합하여 〔+이동성〕〔+직시성〕 자질이 더해져서, '端來', '拿來', '取來', '送來'는 행위자와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이 화자가 주관적으로 정한 기준점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동사건에서 행위자와 이동체는 구분이 되어 '來'가 나타내는 위치이동은 행위자의 자발적 이동(spontaneous motion)과 동작대상의 사역적 이동을 모두 나타내게 된다. 위의 예문에서 동작대상인 '咖啡', '白布包', '畫', '飯菜'는 행위자가 '端來', '拿來', '取來', '送來'한 결과로 그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端', '拿', '取', '送' 자체는 '들다', '가지다', '보내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며, 〔-이동성〕을 가진다.

그런데 이들 동사가 출현하는 모든 'V(P)+來$_3$'에서 행위자와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6) 他就把家譜寄來了，寄到北京。
그는 족보를 베이징으로 부쳐 보내왔다.
【口語\1982年北京話調查資料. 作者:馮振】

(17) 在不到兩個月的時間裏，35位作曲家送來了50多部作品。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35명의 작곡가가 50여 작품을 보내왔다.
【應用文\新聞\新華社2004年新聞稿】

(18) 那位教授很快給他發來了第三次邀請信。
그 교수는 바로 그에게 세 번째 초청장을 보내 왔다.
【報刊\1994年報刊精選】

www.kci.go.kr

예문(16)-(18)에 사용된 '寄', '送', '發'는 위의 예문(12)-(15)에 사용된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자의 동작행위로 이동사건의 <원인>요소가 되고, 동사자체의 〔+동작성〕〔-이동성〕 자질에 '來'의 〔+이동성〕〔+직시성〕 자질이 합쳐져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이 기준점을 향해 발생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들 예문에서 행위자의 위치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문(16)에서 '他'는 '寄'라는 동작행위만을 실행하고 '來' 이동을 하는 것은 '家譜'이다. 예문(17)과 (18)에서도 마찬가지로 '作曲家'와 '那位教授'는 '送', '發'라는 동작행위만을 실행했을 뿐 위치이동을 하지는 않고, 그 동작행위의 결과로 '作品'과 '邀請信'만 위치이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사들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端', '拿', '取'는 동작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동작대상이 행위자의 소유영역에 위치하게 되어 행위자에게 '휴대'된 상태로 이동이 이루어진다. 반면 '寄'와 '發'의 경우는 행위자가 동작대상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행위자의 소유영역에 있던 사물이 소유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送'은 '배달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행위자와 동작대상 모두 위치이동이 발생하고, '보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작대상의 위치이동만을 나타내게 된다.

다음은 이동체가 유정물인 경우를 살펴보자.

(19) 接着, 又有兩個小夥子, 從山下娶來了姑娘。
연이어서 또 두 명의 젊은이가 산 아래에서 아가씨를 신부로 맞이해왔다.
【高建群.大順店】

(20) 然後喊來信息科長王偉, 要王偉領他去找農口的同志陪着下去。
그런 다음 정보과장 王偉를 불러서, 그가 농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동행하도록 했다. 【應用文\中國農民調查】

(21) 路透社從全球調集了十几名記者趕赴北京, 阿拉伯國家的伊朗通訊社、半島電視臺也都派來記者。
로이터사는 각국에서 십여 명의 기자를 소집하여 베이징으로 급파했고, 아랍국가의 이란통신사, 알자지라 방송도 기자를 파견해 왔다.
【應用文\新聞\新華社2004年新聞稿】

www.kci.go.kr

(22) 敵人發現楊靖宇的行踪, 很快調來了大隊人馬, 從四面八方包圍上來。
적군은 楊靖宇의 행적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병력을 움직여 사방에서 포위해 왔다. 【應用文\中國兒童百科全書】

예문(19)-(22)에서 동작행위를 통해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이 발생했는데, 동작대상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정물이다. 이때는 동작대상이 무정물인 경우와 달리 'V'를 실행하는 행위자의 위치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V'의 동작대상이 되는 유정물, 주로 사람이 이동체가 되어 위치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동사로는 '請', '派', '娶', '接', '叫', '喊', '調' 등이 있는데 동사자체는 〔-이동성〕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위치이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동작동사로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인>요소가 되어 '來'와 이동사건을 구성하고 동작대상의 위치이동이 기준점을 향해 발생함을 나타낸다. 이 동사가 '來'와 결합할 때 동작대상 즉 이동체가 출현하게 되는 경우 예문(19)-(22)에서와 같이 '(V의 행위자)+V+來+동작대상' 형식으로 출현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자)+把+동작대상+V+來' 형식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보인다.

(23) 我把醫生請來了。
의사선생님을 모셔 왔어요. 【報刊\讀者(合訂本)】
(24) 她按鈴把侍女喊來, 要侍女在她房裏睡覺。
그녀는 벨을 눌러 시녀를 불러와 시녀보고 자신의 방에서 자라고 했다. 【翻譯作品\文學\戰爭與和平】
(25) 老蔡, 你不簡單哪, 把政府的人都調來了。
蔡선생, 당신 대단한데요. 공무원까지 동원해오다니. 【李佩甫.羊的門】

위의 예문에서는 모두 '把'가 행위자의 동작인 '請', '喊', '調'의 동작대상인 이동체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來'는 행위자의 동작행위에 의해 동작대상 '醫生', '侍女', '政府的人'의 기준점을 향한 실제적인 위치이동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www.kci.go.kr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V(P)+來₃'구문

통사형식 :	S + V(P)(동작동사, 〔-직시성〕〔-이동성〕)+ 來₃ + O S +把+O+ V(P)(동작동사, 〔-직시성〕〔-이동성〕)+ 來₃
의미기능 :	행위자 원인 이동/직시 이동체 행위자 이동체 원인 이동/직시
구문의미 :	이동사건 (행위자가 V(P)가 나타내는 동작을 통해 이동주체로 하여금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 하도록 함)

4. 맺음말

본고에서는 'V(P)'와 '來'가 하나의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V(P)+來' 구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V(P)+來'가 실제적인 공간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V(P)'위치에 출현하는 동사의 특징에 따라 '來'와 구성하는 이동사건의 유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V(P)+來₁'은 행위자가 'V(P)'가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함을 나타내고, '來₁'은 이동사건의 <이동+직시소>이다. 이때 'V(P)' 위치에는 〔-직시성〕〔-이동성〕 자질을 가진 동사가 출현했다.

'V(P)+來₂'는 행위자가 'V(P)'가 나타내는 <경로>를 통해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함을 나타내는데, 이 구문에서 'V(P)'는 〔-직시성〕〔+이동성〕의 방향동사이며, '來₂'는 이동사건의 <이동+직시소>이다.

'V(P)+來₃'은 행위자가 'V(P)'가 나타내는 동작행위를 통해 동작대상으로 하여금 기준점을 향해 위치이동하도록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V(P)'는 이동사건의 <원인>이고 '來₃'은 <이동+직시소>이다. 〔-직시성〕〔-이동성〕의 'V(P)'가 출현했다.

www.kci.go.kr

'V(P)+來'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공간영역에서의 이동의미를 나타내던 '來'가 은유를 통해 소유관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來'로, 더 나아가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來'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의미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가 선행하는 동사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세 부류의 'V(P)+來' 구문 또한 의미확장 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 參考文獻 >

김윤신(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 ≪한국어학≫ 30집, 31-61.
송은미(2008), <이동동사와의 결합에 따른 복합동사의 의미확장>, ≪일어일문학연구≫ 64집, 97-115.
이 숙(2007), <한국어에 나타나는 이동의 어휘화 형식>, ≪이중언어학≫ 33호, 169-188.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20집, 23-45.
조성식(1990),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진 현(2010), <이동사건의 한중 유형학 분석과 대조>, ≪중국언어연구≫ 33집, 155-176.
최원희(2010),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이동사건 표현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陳建軍(2006), <"動+來/去"結构帶賓語時的時体運籌機制>, ≪唐山師範學院學報≫, 第3期.
柯理思(2003), <漢語空間位移事件的語言表達-兼論述趨式的幾個問題>, ≪現代中國語研究≫, 第5期.
栗 會(2008), ≪"來/去"趨向義的對稱與不對稱≫, 广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梁銀峰(2005), <漢語動相補語 "來", "去" 的形成過程>, ≪語言科學≫, 第6期.
劉 慧(2011), <動詞後"來/去"充當的趨向補語与賓語的語序問題>, ≪現代語文≫, 第2期.
劉月華(1998), ≪趨向補語通釋≫,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毛 宇(2000), <對"動詞+來/去"動補結构帶賓句式及動詞的考察>,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7期.
齊滬揚(1996), <關于"動詞+趨向補語"方向价的類型及位移句句型的建立>, ≪中國語文論

叢≫, 第11輯.
沈家煊(2003), <現代漢語"動補結构"的類型學考察>, ≪世界漢語教學≫, 第3期.
王麗彩(2005), <"來"、"去"充當的趨向補語和賓語的次序問題>,≪广西社會科學≫, 第4期.
王 平(2007), <"V來/去"格式的産生和發展>, ≪宜賓學院學報≫, 第2期.
肖秀妹(1992), <"動+來+名"和"動+名+來"兩种句式的比較>, ≪語言教學与研究≫, 第1期.
張正石(2003), <淺析動詞'來'的方向在話語中的變化>, ≪北方論從≫, 第2期.
左双菊(2007), ≪位移動詞'來/去"帶賓能力的歷時、共時考察≫,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Talmy, L.(1985), Lexicalization Pattern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3,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149.
_____(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Ⅱ, Cambridge, Mass: MIT Press.

예문출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 中文提要 >

本文以表示位移義的"V(P)+來"構式爲研究對象, 從位移事件框架的角度探討了由"V(P)"和"來"構成的各類位移事件。 根據"V(P)"在位移事件框架中充當的角色, 把"V(P)+來"構式分爲"V(P)+來$_1$", "V(P)+來$_2$", "V(P)+來$_3$"并對此進行了考察。

"V(P)+來$_1$"表示實施者以"V(P)"表現的<方式>向參照點位移。 "來$_1$"充當位移事件框架的 <位移+指示要素>成分。"V(P)"具有〔-指示性〕〔+位移性〕特徵。

"V(P)+來$_2$"表示實施者通過"V(P)"表現的<路徑>向參照點位移。 "來$_2$"充當位移事件框架的 <位移+指示要素>成分。"V(P)"具有〔-指示性〕〔+位移性〕特徵。

"V(P)+來$_3$"表示實施者的動作行爲引起動作對象的位置變化。 "V(P)"是位移事件框架的<原因>成分, "來$_3$"仍然是<位移+指示要素>成分。"V(P)"具有〔-指示性〕〔-位移性〕特徵。

關鍵詞: 來, 位移事件, 指示性, 位移性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 15.	2012. 2. 7.	2012. 2. 19.	2012. 2. 25.	2012. 2. 29.